

지역 소식통

부안군, 양파 종자대 지원사업 추진

부안군은 지난 2013년부터 소득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원...

올 부안해풍양파 종자대 지원 사업은 총사업비 2억6000만원...

지원대상은 재배면적 1000㎡ 이상인 양파 재배단지...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농가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정읍시, '2024년 제1회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정읍시는 2024년도 제1회 경계결정위원회를 지난 13일 개최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의 이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 2012년부터...

이날 시청에서 열린 경계결정위원회는 금봉1·2·3지구...

/정읍=김대환 기자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공간으로

정읍제일고, 학교 담장 철거부터 학교복합시설 조성까지 적극 추진

정읍 제일고등학교가 앞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공간으로 변신한다.

그동안 이 담장은 도로 소음으로부터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유지돼 왔다.

시는 지난해 내장상동 지역에 편중된 청소년 교육문화시설을 상대적으로 소외된 수성동 지역에 조성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 결과 현재 정읍제일고 구 관사부지에 청소년 창의예술미래공간을 조성 중이며...

이 과정에서 정읍교육지원청과 정읍제일고는 지역사회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며 정읍제일고 담장 철거를 진행...



하고 있다.

또한, 시는 지난 8일 교육부가 주관한 2024년 학교복합시설 2차 공모사업에 선정돼 정읍교육지원청과 협력해 정읍제일고 부지에 총 사업비 172억원(국비 88억원, 시비 84억원)을 투입해 학교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더불어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해 인

도도 개설되며, 어울림정원도 함께 조성해 학교와 시민의 소통 공간으로 기능할 예정이다.

이학수 시장은 "정읍제일고 담장 철거는 학교복합시설 조성의 첫걸음"이라며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새로운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변화된 공간에서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소통의 장이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도시균형발전 위한 정주 여건 개선에 최선

도시가로망 정비·흥덕 송암마을 생활여건 개선·나들목공원 유아숲체험원·어린이생태놀이터 개장

고창군이 군민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인구 유입과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정주 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먼저, 고창군은 군민들의 교통편의 제공, 쾌적한 주거환경 도모 및 도시균형발전을 위해 "도시가로망(도시계획도로로 개설) 정비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은 총사업비 36억원을 투입해 월곡마을 입구(고창읍 월곡리 253번지)에서 공설운동장(고창읍 월곡리 116-5)까지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를 설치할 계획이다.

주거지역 내 기존 도로 선형개선과 협소한 구간의 확포장을 통해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체육시설(운동장, 군립체육관) 이용자 접근성 향상 등 교통보완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에 선정되기도 했다.

군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주관하는 '2025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사업에 흥덕면 송암마을이 선정, 국비 최대 15억원 포함 총 사업비 약 21억원을 확보했다.

흥덕면 송암마을은, 낙후된 농촌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생활·안전 인프라 확충 △주거환경 개선 △마을환경개선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 강화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고창군은 유아부터 어른까지 모든 연령대의 군민뿐만 아니라 방문객들에게도 휴가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중앙공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하고 편리한 시설을 확충한다.

9월에는 유아숲체험원(아외체험학습장, 놀이시설)과 어린이생태놀이터(네트놀이대, 어린이놀이기구 16종, 생태체험 및 교육공간)가 새롭게 개장한다. 이밖에 맨발황토길, 등부주차장도 조성될 예정이다.

국도교통부 주거복지 성과평가 우수

지자체에 선정되기도 했다.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집수리를 시행하는 그린 리모델링 지원사업에 동당 100만원을 증액 편성해 도내 최초로 동당 600만원씩 총 5억1000만원을 지원했다.

또한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비 2억원으로 가구당 대출잔액의 2% 최대 200만원 이내 대출이자를 지원해 전세 뿐 아니라 구입의 경우에도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 완화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외에도 군은, 나트륨등과 노후된 가로등기구를 LED조명으로 교체하고 있으며, 가로등이 없어 어둡고 위험한 장소에 보안등 신규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연내 약 660개소(LED조명 교체 460, 보안등 신설 200)의 가로등 정비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어둡고 침침한 야간 도심지의 분위기를 밝고 안전한 분위기로 바꾸어 군민들에게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창=김영성 기자

고창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 개최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이 8월 15일 광복 79주년을 맞아 동리국악당에서 경축식을 개최하고, 조국을 위해 헌신한 선열들의 숭고한 나라사랑 정신을 기렸다.

이날 경축식에는 심덕섭 고창군수를 비롯해 조민규 고창군의회 군의장 및 군의원, 전북특별자치도 도의원, 독립유공자 유족, 보훈단체장, 관내 학생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심덕섭 군수의 경축사와 독립유공자 유족 고두성씨의 뜨거운 기념사가 이어졌다. 고두성씨는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회상하며, 후손들이 그 정신을 이어받아 더욱 발전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축식 후에는 주요 헌신시설인 도동사를 방문해 헌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도동사는 지역의 유림들이 나라에 충성하고, 절의를 도모하고자 지은 사당이다. 조선의 독립을 위해 순절한



의병 대장 최익현을 중심으로 고석진, 고용진, 고예진 독립운동가의 위패가 안치되어 있다. 이곳에서 참석자들은 묵념을 울리며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겼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오로지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수많은 애국선열들과 독립유공자들의 희생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해방된 조국을 뒤흔들었던 민세의 함성처럼 기쁜 마음으로 광복절의 의미를 다시 되새기며,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독립운동가 한분 한분을 기억하는 날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성 기자

부안군, 고향사랑기부제 우수사례 경진대회 결선 진출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오는 9월 4일부터 7일까지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행안안전부 주최로 개최되는 제2회 고향사랑의 날 기념식 및 박람회에서도 열리는 제1회 고향사랑기부제 우수사례 경진대회 결선에 진출했다고 밝혔다.

국가기념일인 고향사랑의 날(9월 4일)을 맞아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 신설된 고향사랑기부제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지자체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고향사랑 담례품이나 기금사업의 우수 성과를 발표 및 공유하며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성화하고 상호 발전하기 위해 실시된다.

군은 고향사랑기부제사업으로 환경변

화로 인해 사라지는 벌을 보호하기 위한 선도적 ESG 사업인 '야생벌 봉봉이를 지켜주세요!', 취약계층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이동세탁건조차량 뽀송이 지원사업', 청년층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한 '청년 주거비용 지원사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군은 시도별 3건씩 제출한 경진대회 심사에서 지역문제 해결, 창의적 아이디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 여부 등 사전 평가를 통해 최종 14개 지자체가 겨루는 본심사에 진출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부안군의 고향사랑기부제가 전국적인 인정을 받는 거 같아 기쁜 마음"이라고 말했다.

/부안=김성진 기자

정읍시, 첨단바이오 육성 기업지원 R&D 사업설명회

정읍시는 지난 13일 첨단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R&D 회의실에서 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지원 R&D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설명회에는 지역 내에 있는 기업과 투자 약속을 맺은 기업(MOU), 입주 희망 기업, 혁신 연구기관 등 20여 개의 기업체와 연구기관이 참석했다.

이번 설명회는 전북테크노파크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북본부에 참여해 첨단바이오 육성 R&D지원사업과 (비)임상 패스트트랙 지원사업, 연구개발특구 전북본부 R&BD사업 등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R&D사업에 대한 사업내용, 지원금, 추진방식, 신청방법

등을 소개하고 현장에서 기업과 발표자간 질의응답을 실시해 기업의 궁금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특히, 첨단바이오 육성 R&D지원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와 정읍시 등이 협약하고 (재)전북테크노파크가 사업을 총괄하는 방식으로 올해부터 3년간 총 215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시는 이 설명회를 통해 바이오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첨단산업단지 일대를 신성장동력 바이오 산업단지로 발전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를 통해 핵심기술 선도기업을 발굴하고 유치하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Advertisement for '착한신고' (Good Reporting) campaign. It features a woman covering her face in distress and lists benefits of reporting crimes. Key points include: reporting helps protect children's health and safety, allows for early intervention, and provides support for victims. Contact information: National Helpline 112, or local child protection centers.